

올해 전북형 국제교류 시동

전북교육청, 국제교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일한 국제교류수업 100개 학교 확대, 연수자가 직접 기획하는 자율형 연수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 국제교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전북민의 특색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세상을 잇고 미래를 여는 공존과 성장의 전북형 글로벌 교육을 위해 국제교류 비전으로 삼아 학생 주도성과 교육과정 연계성을 강화한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어 교육을 매개로 한 국제교류사업 활성화로 'K-에듀'를 확산해 나간다. 지난해 미국 시애틀 태극, 동경 한국교육원과 연계해 호응을 얻었던 한국어 기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올해는 미국 시카고, 브라질 상파울루까지 확대한다.

현지 학생들의 관심사와 각 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 한국어 학습과 한국 문화 체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융합형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가 단순한 학습의 대상을 넘어 문화를 향유하는 도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북형 국제교류수업'도 확대 추진된다. 2023년 40개교로 시작한 국제교류수업 학교는 2024년 61개교, 2025년 86개교에서 운영했으며, 올해는 100개교로 확대하고 온라인 공동수업과 해외 방문 교류를 병행해 사업의 효과를 높인다.

아울러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교류수업 마스터 교사'를 양성해 각 학교에 맞춤형 컨설팅과 멘토링을 지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 국제교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전북민의 특색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교육청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체부터 장소까지 연수참여자가 직접 설계하는 자율기획 연수도 도입한다.

교원 연수는 동료교사 4인이 한 팀을 이루어 교육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연수국가와 기관을 직접 설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생이 주도하는 '글로벌 프론티어 해외탐방'은 올해도 계속된다. 학생들이 직접 탐구 주제를 정하고 일정과 예산을 기획하는 이 연수는 전북교육청의 대표적인 학생 주도성 신장 프로그램이다.

모의 유엔(UN) 리더십캠프, 나사(NASA) 캠프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분야별 특화 해외연수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미국 현지 대학 연계 프로젝트 수업 및 유엔 본부 탐방으로 세계시민 자질을 기르는 '글로벌 리더십 캠프' △미국 현존빌 '나사 글로벌 캠프' △IT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SW·AI 학생성장 글로벌 캠프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글로벌 인턴십 등이 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일정 및 사항은 전북교육청 해외연수·국제교류 누리집(www.jbc.go.kr/glo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성화 정책기획과장은 "전북의 학생과 교사들이 교실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연수를 통해 국제교류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3월 1일자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 지난 20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2026학년도 3월 1일자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유정기 전북교육감 관련대행이 신규 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규교사는 유치원 교사 33명, 초등교사 22명, 중등교사 207명 등 총 262명이다.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건강 급식 지원

전북교육청, 2026 학교급식 기본방향 설명회 건강맞춤형 교육급식·신뢰받는 안전급식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건강맞춤형 교육급식, 신뢰받는 안전급식, 소통·협력하는 어울림 급식'을 목표로 2026년 전북 학교급식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단설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의 급식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 학교급식 기본방향 설명회를 열고, 주요 정책추진 방향을 안내했다.

올해 학교급식 기본방향은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 건강한 급식지원, 행복한 영양·식생활교육 실현에 중점을 뒀다.

먼저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을 위해 HACCP 시설기준 이상으로 식생활관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건강한 급식지원'을 위해서는 친환경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저탄소

채식의날 실천학교 운영, 한토식단 레시피 개발·보급, 식품유통망 대체 식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복한 영양·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학교 생태·환경교육과 연계한 교육급식 운영, 개인맞춤형 학교 영양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기건강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행복한 학교급식,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교육청은 급식기본방향을 토대로 교육주체들과 적극 소통하며 체계적인 급식관리,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교육청, 올 신규 사업 '학생인권 서포터즈'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학생인권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의 정책 제안을 계기로 추진되는 학생인권 서포터즈 운영은 학생이 주체가 되는 인권교육 및 정책 참여 확대가 목적이다.

학교 안에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인권교육과 인권정책 실행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게 전북학생의회의 제안이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중심 동아리 중 일부를 '학생인권 서포터즈' 동아리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전주, 익산, 군산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학생인권 서포터즈가 가동되면 △학교 현장에서 인권 문제 발굴 △실천 활동 △의견 제안 등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도내 대학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

"어떤 선택을 하든, 도전하는 순간 응원"

국립군산대,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총 1287명에 학위 수여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20일 교내 아카데미 홀에서 '제44회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1,100명, 석사 105명, 박사 82명 등 총 1,287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과 가족, 교직원 재학생 등 약 1,500명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국립군산대 임기욱 총장 직무대리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선택을 하든, 도전하는 모든 순간을 응원하며, 국립군산대의 이름으로 당당히 합차게 세상에 나서길 바란다"며 졸업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은 "국립군산대의 발전과 학생 여러분의 꿈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마음 깊이 응원한다"며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졸업생 대표로 나선 환경공학과 임주에 학생은 총학생회와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 등을 소개하며 "대학은 단순한 강의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움직이고 책임지는 또 하나의 사회임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국어국문학과 송



국립군산대학교가 지난 20일 교내 아카데미 홀에서 제44회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은지 학생은 영어영문학 복수전공과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통해 성장한 경험을 나누며 "길을 찾지 못하는 순간마다 든든한 교수님과 동료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캠퍼스 곳곳에 '꽃벽 포토존'과 '인생네컷 즉석 사진 부스'가 마련되어 졸업생과 가족들이 함께 추억을 담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더했다.

더불어 학과 및 동아리 선·후배, 지도 교수, 가족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가 담긴 배너가 캠퍼스 곳곳에 설치되어 졸업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다.

한편, 국립군산대는 이번 학위수여식을 계기로 학생들의 도전과 성장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권신=김만호기자

"각자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슈퍼스타'"

전주대,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총 1848명에 학위 수여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교내 예술관 JJ아트홀에서 졸업생과 가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746명, 석사 72명, 박사 30명 등 총 1,848명이 정돈 교정을 떠나 사회를 향한 당당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행사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차종순 이사장 김희수 총동문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식순은 조재천 대학교회 담임목사의 기도를 시작으로 학사보고, 총장 인사, 이사장 격려사, 총동문회 부회장, 시상식 및 학위증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차종순 이사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탁월한 학업 성적과 성실한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된 학생들에게 이사장상, 총장상(성적우수), 공로상, 총동문회장상, 전발현희장상 등이 수여돼 의미를 더했다.

전주대학교 류두현 총장은 "졸업생 여러분은 각자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슈퍼스타'로 변화와 실패를



전주대학교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교내 예술관 JJ아트홀에서 졸업생과 가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섬김의 리더십과 창의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전주대학교는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과 성장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체 학위수여식 이후에는 학과별로 개별적인 졸업 행사가 이어졌으며, 대학은 스타센터를 비롯한 캠퍼스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대학 마스코트 '제이제이(JJ)'가 졸업생

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학위수여식 분위기를 높였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2026년 대학 슬로건을 '빛으로 새롭게'로 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나선다. 이번 슬로건은 감학이념인 기독교 정신(빛과 진리)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전환과 대학의 근본적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연구생에 전주기 우수연구자 지원

조교수~정년 이후 교수까지 우수연구자 선정해 '스타교수' 육성 성과 탁월한 교원 '펠로우' 지정... 전주기 연구지원 체계 확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연구생에 전주기에 걸친 우수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며 글로벌 Top10 대학 도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교수부터 정년 이후까지 단계별 우수연구자를 선정해 이른바 '스타교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대는 지난 20일 연구 성과가 탁월한 교원 19명을 '펠로우(Fellow)'로 지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정은 연구생에 전주기 우수연구자 지원 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우수 연구자는 임용 5년 이내의 'JNU Young Fellow', 부교수 및 승진 5년 이내의 'JNU Fellow', 교수 승진 5년 이후부터 만 60세까지의 'JNU Star Fellow', 만 61세 이상 및 정년 이후까지 지원하는 'JNU Distinguished

Professor'로 구분됐다. 대학 측은 논문 실적, 상대적 피인용지수,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 등 연구 실적 평가와 연구계획 적격 여부를 포함한 3단계 심사를 거쳐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8명, 자연계열 10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JNU Star Fellow'에는 김혜영(간호학과), 양은석(철학과), 윤영상(화학공학부), 백기태(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JNU Fellow'에는 노주희(간호학과), 신희영(심리학부), 황원식(경제학부), 김남훈(나노융합공학부), 박찬희(기계설계공학부), 타이리히탈(국제어공학부), 장정석(생명공학부) 교수가 선정됐다. 'JNU Young Fellow'에는 이승호스

페이·종남미학과), 윤경환(무역학과), 이삼균(스포츠과학과), 유일환(지역건설공학과), 이태훈(신소재공학부), 황국화(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 이창환(내과학과 소화기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사회복지와 운영교수 교수를 JNU 석좌교수로 임명해 정년 이후에도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선정 교수들에게 과제당 연구비와 함께 전북대 대표 석학임을 상징하는 명패와 현관, 'JNU Fellow Box' 등이 수여됐다.

양오봉 총장은 "지역혁신과 국가균형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도전적 연구와 미래 신기술 기반의 교육혁신,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교수들의 열정과 노력이 대학의 학문적 조직 문화를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